

저녁 여섯 시의 부엌은 하루 중 가장 정직한 곳이다. 온종일 밖에서 어떤 말을 했든, 이 시간의 부엌은 누가 앞치마를 두르고 누가 식탁에 먼저 앉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양성평등은 광장의 구호이기 전에, 이 좁은 부엌의 동선에서 먼저 판가름 난다.

오래 우리는 집안일을 '돕는다'고 말해 왔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아내를 돕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이를 씻기면 엄마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돕는다는 말에는 이미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나뉘어 있다. 원래 그 일의 주인은 여자이고 남자는 잠시 거들 뿐이라는, 오래된 전제다. 평등은 이 말 한마디를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설거지는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나누어 지는 몫이다.

부엌의 습관은 아이의 눈으로 그대로 옮겨 간다. 아이는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배운다. 아버지가 국을 데우고 어머니가 못을 박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부엌칼과 드릴에 성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안다. 반대로 한쪽 손만 늘 바쁜 집에서 자란 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그 불균형을 물려받는다. 실천은 늘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된다. 평등은 직장에서도 큰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회의실에서 여성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 동료를 당연하게 대하는 눈빛, 승진과 중요한 일이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배분되는지 묻는 습관. 거창한 선언보다 이런 사소한 태도가 하루를 바꾼다. 제도가 길을 낸다면, 태도는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한다.

양성평등을 여성만의 문제로 두는 한 그것은 절반의 과제로 남는다. 남자에게 씌워진 '울지 마라, 가장이 되어라'는 오랜 명령도 같은 틀에서 나왔다. 서로에게 지운 굳은 역할을 나란히 내려놓을 때, 남자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평등은 누구의 몫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어깨에서 낡은 짐을 함께 덜어 내는 일이다.

거창한 캠페인은 하루면 지나간다. 그러나 저녁 여섯 시마다 되풀이되는 작은 실천은 사람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끝내 사회의 온도를 바꾼다. 오늘도 누군가의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개수대 앞에 선다. 그 평범한 저녁이, 내가 믿는 양성평등의 가장 확실한 얼굴이다.